

보도일시	2025. 05. 27. (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 한국전기기술사회와 정책 협약 체결

- 위성곤 위원장, “탄소중립 시대, 전기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 축”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7일(화), 한국전기기술사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전력산업 구조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기후위 위성곤·위진 위원장과 한국전기기술사회 이현화 회장, 김상직 부회장, 박동규 고문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전기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대응 수단이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이라며,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넘어, 분산형 전력체계와 재생에너지 기반 확장을 가능케 하는 중심축이 바로 전력기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며,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후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기기술자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주역으로 존중받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한국전기기술사회는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스마트그리드 확대 및 분산형 전력시스템 도입 등 미래형 전력 인프라 구축 ▲감전·전기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업 안전체계 마련 ▲전기분야 기술자 전문 체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



<사진> 2025. 05. 27.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한국전기기술사회 정책협약식